

그림 신현서

어둠, 그리고 우주

[교실 속 그림책] 어둠, 그리고 우주

2016년 11월 9일 초판발행 2016-00018

| 지은이 | 신현서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959361-7-5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신현서와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머 리 말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입니다.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작가의 글

어린이작가 신현서는 자신이 표현한 것이 어쩌면 정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저 어둠 일 수도, 또는 넓디 넓은 우주에서 슬며시 떨어져 나온 파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히 이것은 어둡고, 어둡고, 또 어두우며 불안정하다. 이토록 알록달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어둠은 스스로 초라해진다.

놀라운 감각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작가 신현서는 스스로를 남들에 비해 재능도 능력도 부족하게 여겼다. 자신을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어느 날 그 어둠이 반짝이는 별들이 수 놓인 밤하늘, 우주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이라 말한다.

그녀가 전하는 위로는 다음과 같다.

“ 여러분은 사실 썩 괜찮은 구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내 몸은 너무나도 어둡고 칙칙해 보여요.
이런 나도 쓸모 있는 구석이 있을까요?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나는 길을 떠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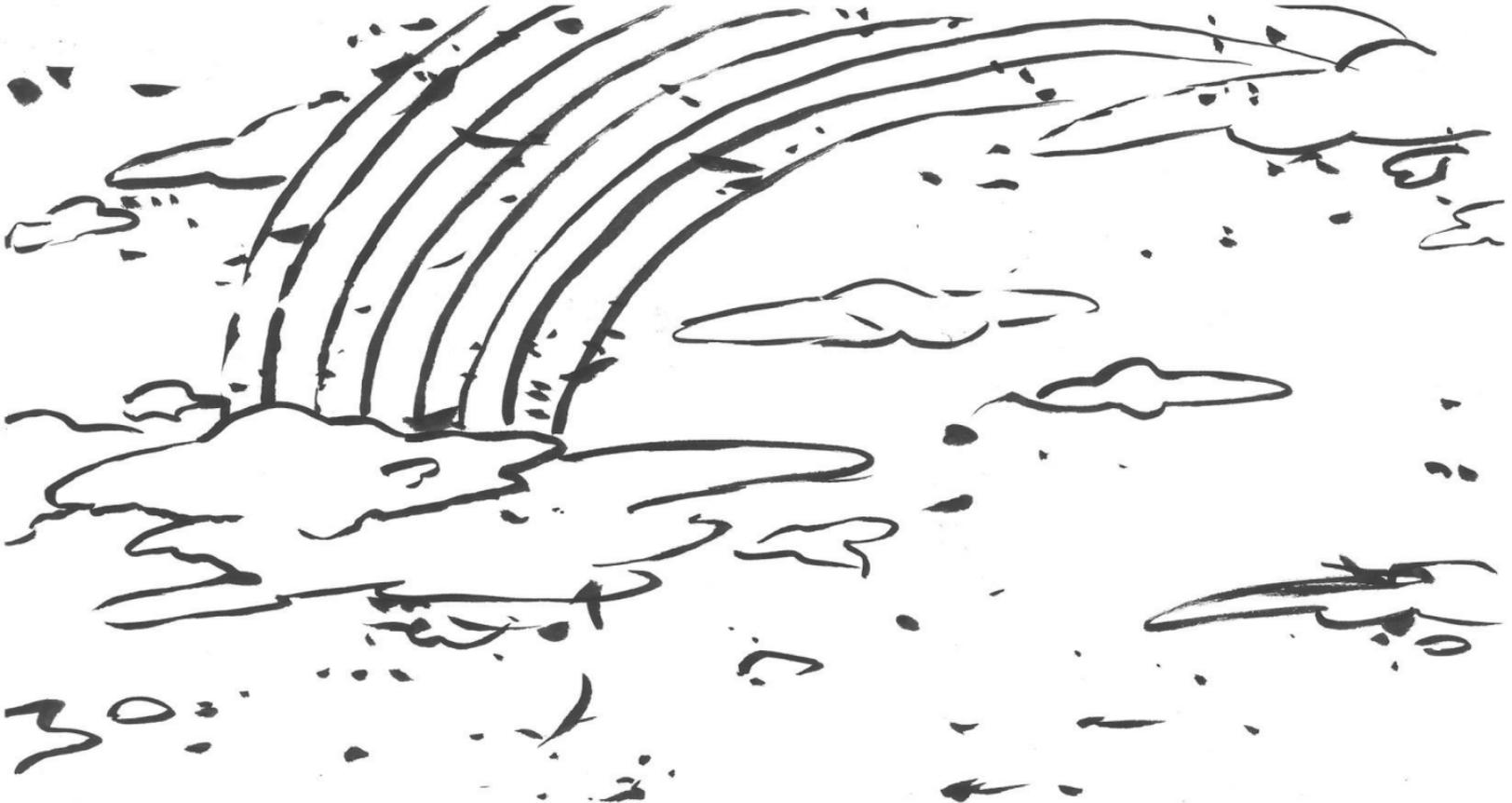
이곳은, 그래. 아름다운 꽃밭입니다. 알록달록한 이곳에는 나와 같은 어둠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곳은, 울창한 숲. 시원한 색들로 가득한 이곳에는 나를 보아줄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곳은, 견고하고 단단한 바위 산, 이곳 역시 나를 이해 해줄 어둠은 없습니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예쁜 무지개, 나와 같은 어둠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곳은 우울하고 생기 없는 도시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을 곳이지 않을까?
주위를 열심히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어디에도 나와 같은 어둡고 칙칙하며 새까만 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가요?

어째서 나는
이리도
무능한가.



나도 존재해요.
이렇게 어둡고 칙칙할 따름이지만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있어요.



슬픔.
이것은 슬픔입니다.

나는 그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과
슬픔이라는 물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달립니다.



이 슬픔으로부터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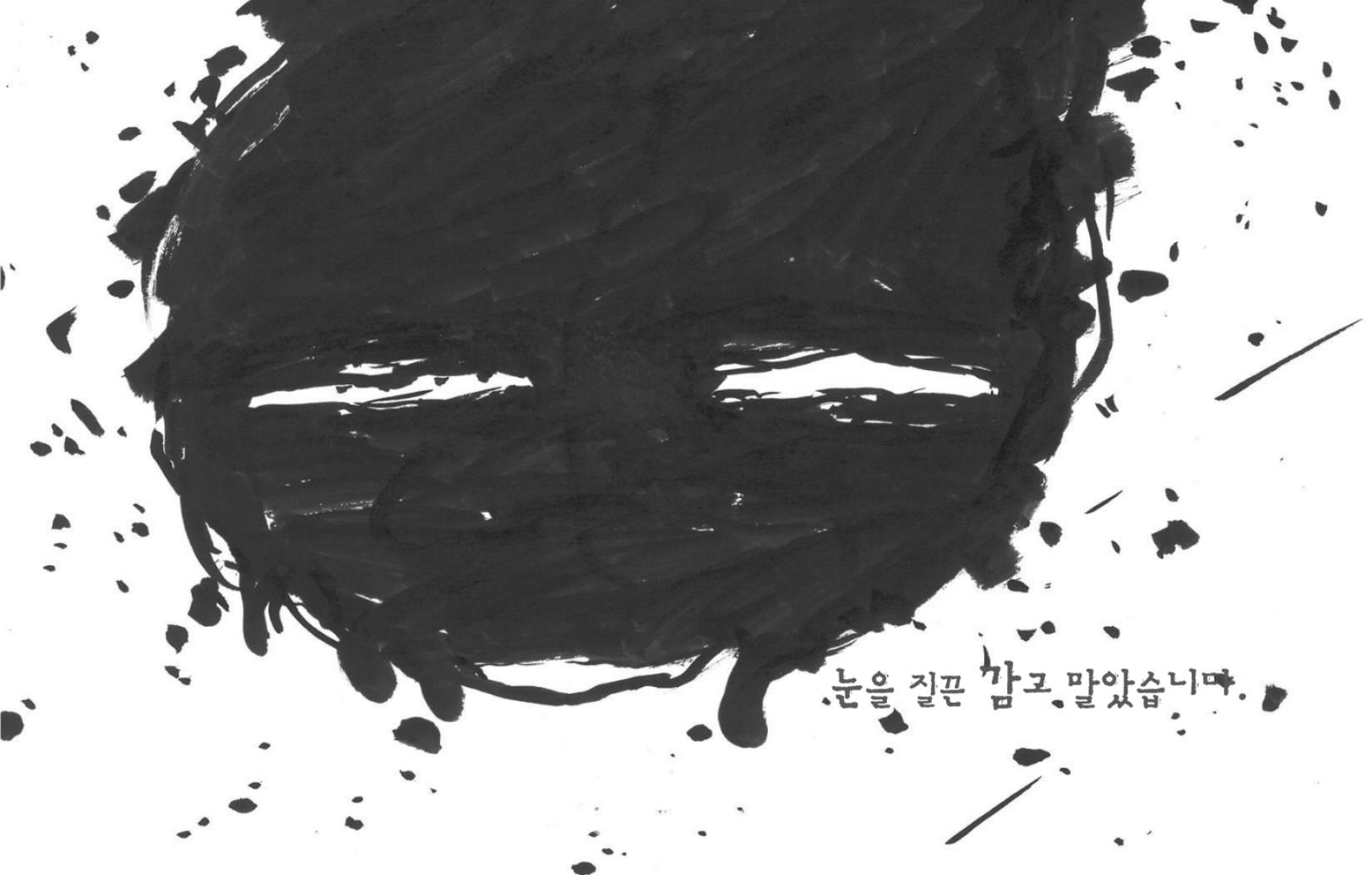
눈길을 돌린 그 곳은 바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나는 오히려





그 만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슬며시 떠보니 그곳은,

우주,

우주입니다!

반짝이는 꿈들을 가득 품어 담은 그 우주든 분명,
타와 같은 색!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어둠, 그리고 우주입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품을 수 있는 나,
나는 어둠, 그리고 우주.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어둠, 그리고 우주 [전자자료] / 지은이: 신현서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6
전자책 책
ISBN 979-11-959361-7-5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6022904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07088)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75810



9 791193 936175

ISBN 979-11-959361-7-5

ISBN 979-11-957446-5-7 (세트)